

# 고흥군, 상반기 사전심사로 20억 절감

### 예산절감 재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행착오 막고 부실공사 예방에 힘써

고흥군은 2020년 상반기 공사, 용역, 물품구입, 제조 등 각종 사업과 설계변경 발주 전 사전심사 단계에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특정감사를 통해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는 262건 939억원의 각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설계서, 법정경비율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물량 및 단가, 경비율과 과다계상,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불일치 오

류사항 등 사전 심사·조정으로 20억원의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했다. 일상감사는 246건의 사업추진과 집행, 절차, 목적의 사용 등을 검토하여 행정낭비 및 시행착오를 막고 부실 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품질확보에도 기여하는 등 1석 2조 효과를 거양했다. 정감사는 18건에 대한 설계변경 타당성과 추진과정을 검토하여 3

천만원의 예산절감과 함께 10건의 준공입회 등을 통하여 건설시공도 록 했다. 또한 사업발주 및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 및 감사기간을 1~2일로 단축운영하고, 각종 소요자재의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권고하며,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사업예산의 총당,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담당자교육 등을 통한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화 및 시공품질 향

상은 물론 안전관리에도 힘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긍정혁신단 확인평가팀으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특정감사 부서를 일원화하여 효율적 운영 뿐만 아니라 사업발주 부서에 실질 도움을 주고자 12월에는 ‘2020년도 계약심사 업무편람’을 편내고, 지난 5월에는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발주 부서에 배부로 실무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 ‘보성다향대축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 4년연속 수상

보성군의 대표 축제인 ‘보성다향대축제’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대상에서 4년 연속 ‘축제글로벌 명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해 보성다향대축제,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일립산 철쭉 문화행사, 울포 해변 활어잡기 페스티벌, 보성군민의 날 등 보성을 대표하는 5개 축제를 통합 운영해 성공을 거뒀다. 행사기간동안 관광객 60만여 명이 방문하고, 766억 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보성다향대축제는 ‘찾고 가기, 차 만들기, 차 마시기’ 등 길러콘텐츠를 보강·확장해 큰 사랑을 받았다. 또 어린이를 위한 키즈존을 구축해 가족단위 관광객을 사로 잡았다. 그 결과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 한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차문화 대표축제로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대상은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열린 지역 축제 중에서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뤘거나 추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성다향대축제는 올해까지 4년 연속 ‘축제글로벌 명품 부문 대상’ 수상을 거머쥐었다. 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최대의 차문화 축제인 보성다향대축제를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해 전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설립 3주년 맞아 “‘보육사각지대’ 해결하는데 앞장”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도시 광양 실현을 목표로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설립된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사장 황재우·사진)이 지난 3일 설립 3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10월 보육재단 정기후원 계회가 1만 계회를 달성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행사를 개최하고 아동, 후원자, 시민들이 나눔 안에서 하나가 되며, “우리 지역의 아이를 우리 모두의 아이로 키워나가자”는 공감대를 펼쳐나갔다.

### ◇ 선도적 보육사업으로 독보적인 전문성 확보

재단은 지난 3년간 53개 보육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지자체 각종 평가에서 선도적 보육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대표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간헐 예방시스템 ‘쑥쑥이 땀땀’ 사업은 2018년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간헐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이다.

전국 지자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이후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전국을 선도하는 사업이 됐다.

### ◇ ‘저출산과 아이 양육은 지역사회의 공동책임’ 시민의식 확

지난 3년간 지역의 어린이들을 지원하며 우수사업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건 후원자들의 숨은 노력과 나눔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 ◇ 재단의 보육 구심점 역할 강화는 남은 과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어린이 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는 데 전력을 다하면서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주도하는 구심점 역할 강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황재우 이사장은 “우리지역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위해 달려온 지 3년이 흘렀다”며,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보육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어린이 보육의 든든한 주춧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순천문화재단,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부자에게 소득공제 혜택 및 각종 예우 제공

순천문화재단(이사장 허석)은 지난 5월 전문예술법인에 지정된 것에 이어 최근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최종 승인되었다.

순천문화재단은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의 공개모집이 가능하고 각종 세제상 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 재단 기부자(후원자)도 후원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전문예술법인 및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활동에 관심있는 일반시민과 기업으로부터 기부금품을 공개모집하여 지역예술가·단체와 문화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며, 순천시민의 문화 수요에 상응하는 행사·공연과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재단 고유의 기부문화를 정립하고, 기부금품 운영에 투명

성과 공정성을 위해 기부금품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후원자 공개모집과 예우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허석 순천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전문예술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계기로 지역 문화예술계에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재단 자체사업을 확대하여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문화도시 순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문화재단은 지난해 9월 설립되어 예술인등록 지원사업, 예술인 교육사업, 무관중 콘서트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천문화재단에 기부(후원)를 희망하는 개인·기업은 경영지원팀(061-746-290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광양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결과 발표

국민제안 총 70건...심사결과 최종 2건(금상 1·동상 1)

광양시는 출산기정 지원 확대를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양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됐으며, 접수결과 총 70건의 접수됐다.

시는 접수한 아이디어에 대해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노력도 등 1차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14건을 선정하고, 2차 관계부서 사전 심사를 거쳐 예비 우수제안 4건을 선정했다.

이후 지난 6월 30일 제안심사위원인 부시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금상 1건, 동상 1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금상은 ‘다자녀가정 증감소음 해결지원’ 권으로 접이형 충격흡수 실내 바닥매트를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주는 저출산 대응 시책이란 점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동상은 육아용품 대여 권으로 ‘카시트, 유모차 등 육아용품을 대여하여 출산기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였으면 한다’는 목적으로 제안됐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